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한국 김산업 연합회 공로패 수상

한국 김산업 품질검사 기준 마련 및 검사 등 기여 공로 “국가 김산업 발전 기여 연구기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가 제12회 김의 날 행사를 맞이해 김의 품질검사 기준 마련 및 정량 검사 등 한국 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지난 4월27일 고흥에서 열린 김의 날 행사는 (사)한국김산업연합회가 주최로 김 산업 종사자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담당자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했는데, 목포가 한국 김산업 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목포 수산물식품지원센터는 그동안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시의 지원을 통해 김제품의 품질 향상, 신제품 개발, 위생 안전성 연구 등 다양한 김산업 연구·개발을 통해 전문적인 연구역량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해수부 제1호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앞으로 김산업 전문 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김에 대한 글로벌 시장 개척

을 위해 ▲김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국제 김 거래소 설치 등 김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국가의 김산업 육성에 맞춰 목포를 김산업 특화단지로 만들기 위해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에 더해 앞으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마른김 거래소 도입 ▲수산물식품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김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가 국가 김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흑산도 홍어 참맛 느껴보세요”

신안군, 흑산도 홍어축제 5일부터 개최

신안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산물 홍어를 소재로 신안군 대표 관광지인 흑산도 예리항에서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틀간 '2023년 흑산도 홍어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홍어 비빔밥 만들기, 홍어잡이 어선 풍어제, 흑산도 아가씨 노래자랑, 홍어 해체쇼 및 시사회, 흑산홍어 깜짝 경매 등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흑산홍어 판매관 및 홍보·전시관, 특산물 판매장 및 먹거리 장터 운영, 홍어사진 및 그림 전시회, 신안군 요트협회 주관으로 요트체험과 페리어드 등 가족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신안=이덕주기자

무안군, 영농철 맞아 종자소독 철저 당부 올바른 볍씨소독과 약제 사용 요령 등 영농지도·건전 묘 생산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화)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건전 묘 생산을 위하여 올바른 볍씨소독법과 약제 사용 요령 등 영농지도에 나섰다.

정부 보급종은 농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종

자를 통해 전염되는 키다리병, 벼잎선충 등 쌀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정선된 마른 종자를 사용하여 종자소독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벼 종자 소독 방법은 온탕 소독과 약제 담금(침지) 소독이 일반적이다.

영광군, 군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영광군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26일 다중시설(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에서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홍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가지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알리기 위해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접근이 어려운 맹지해소, 이웃 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영광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며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아름다운 산단으로 거듭난다”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주거환경 개선사업 ‘눈길’

영암군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

군은 도로 및 인도 재포장, 차선과 교통안전 시설 정비, 교량 정기점검 및 보수공사 등의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아름다운 거리」 및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후 산단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밝고 활기찬 산단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예정인 「대불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22억 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산책로 정비에 나서며, 지난 3월 (썬케이씨 인근 1.4km)의 노후도로에 대한 정비를 시작으로 대아로 등 6개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5월부터는 18억 원을 투입하여 인도 정비공사도 시행한다.

대불산단은 97년 조성된 이래 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대불산단 내 자전거도로 7.45km를 개설하는 한편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도로(인도)를 전면 정비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 안전점검과 보수공사, 낙석방지 보수공사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대불기업지원단 관계자는 “대불기업지원단은 산단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래된 산단이니만큼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